

## 보건행정분야(보건소중심)에서의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과정개선

경북 고령군보건소장 안순기

먼저 대한예방의학회에서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전공의 수련에 개선논의가 학회차원에서 있어왔고 시대적 요구에 잘 반응하여 왔다. 최근 예방의학전문의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2000년 11명, 2001년 13명, 2002년 11명, 2003년 7명, 2004년 14명, 올해2005년에는 13명으로 소수의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민선 자치시대의 일선 보건소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 중앙부처에 예방의학적인 사고와 경험을 가진 의사들이 지역주민 또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에 보다 많이 진출하기를 요구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예방의학전공의 지원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정원책정이 적어서가 아니라 젊은 의사를 유인하는 그야말로 인생을 바쳐 하고 싶은 뭔가가 없어서는 아닐까?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일까!

‘소의치병(小醫治病), 중의치인(中醫治人), 대의치국(大醫治國)’ 이란 글귀만으로는 시대적 요구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 같다.

부끄럽지만 토론자 자신의 사례를 들겠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군대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중보건의를사를 3년 동안 농촌지역에서 하게 되었다. 1997년 8월경 파출소에서 시체검안을 가자고 연락이 와서 면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로 나가게 되었는데 당뇨병 과거력이 있는 독거노인이 사망하여 며칠 동안 방치 된 것을 목격하고 농촌의 현실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 더 이상 없으려면 의사로써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 개별적인 진료를 넘어선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예방의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평생을 농사일로 뒷바라지하신 부모님과 의사와 결혼했으니 이제 편하게 살겠다는 기대를 가진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화두였지만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수련을 받고 2003년 2월 28일 예방의학전문의자격을 취득하였다. 수련기간 중에 기억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월성원전역학조사, 대구광역시 지역사회진단, 암등록사업, 해파가드임상시험, 대구시 북구, 구미시 건강증진사업 등이다. 전문의가 된 후 평소에 생각했던 바대로 2003년 3월 26일자로 농촌지역인 경북 고령군보건소장에 임용되어 보건소장 직무를 2년 7개월가량 수행해오고 있다.

주제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이신 이종구국장님께서 국립보건원 방역과장 시절에 인터뷰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어렵게 찾았다.

Q. 이 일[국립보건원 방역과장의 직무]은 어떤 사람에게 어울리는지, 미리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지 말씀해주십시오.

A. 우선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방의학, 보건행정, 의료관리, 가정의학 분야의 수련을 받는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 역시 지방행

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조직 등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며, 어떤 분야의 일이라도 맡게 되었을 때 그 관련분야까지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사회의 관리자로서 일을 종합하고 이끌어가는 능력, 즉 리더십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건행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에 기반을 두고 공적인 책임 하에 보건의료의 수요와 요구에 대해 개인, 조직, 지역사회, 국민의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한 서비스를 정착에 따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하고, 자원을 조직화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고 협력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의 구성요소로는 1) 합리적 법적 근거 : 강제성과 공평성 2) 교육 훈련된 유능한 요원 확보 3) 이용 가능한 시설·장비의 확충 4) 충분한 재정적 지원 5) 건전한 행정조직과 인사제도 6) 사업의 합리적 전개 7) 실시 가능한 유효한 학문적 이론과 기술 8) 강력한 주민의 지지와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보건행정에 대해 논하기에는 현장경험이 부족하고 보건복지부등 중앙부처나 연구기관에서 정책기획 역할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의 보건소의 지방보건행정에 대해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경험했다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토론코자 한다.

### 힘들었던 사례

수련기간 동안 접해보지 못한 지방의회와 예산안 설명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국비사업을 추진할 때 조례에 따라 의회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보건소에 경험이 없는 직원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수순이 바뀐다든지,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의회에서 혼란 경험이 있었다. 질의 답변부분도 상당히 고전한 경험이 있었다.

직원들의 근무부서조정과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요인이 있을 때에도 한계를 많이 느낀다. 제한된 자원으로 포지션닝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참으로 난제이다. 의사소통을 통해 불만 해소하고 동기 부여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 수련이 도움 되었던 사례

두말 할 나위 없이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지식과 기술보다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보건소 현장에서 재발견되었다. 은사님께서 “잘 된 것도 내 탓! 못 된 것도 내 탓!” “너 하기에 달렸다”는 말씀을 수련기간 중에 자주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행정의 틀 안에 보건행정이 속해있고 타 부서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위생, 농정, 환경, 수도 등은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 수련과정에 필요한 사항들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어야 한다. 예방의학 수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만으로는 한계

가 있으며 학회차원에서 관(산)학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현장중심의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중앙부처나 연구기관에서도 현장의 소리를 놓치면 탁상공론의 정책만 생산하게 될 것이다. 지방이나 중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행정, 예방의학 선배들과의 교류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지역보건의료발전 위한 모임'과 학회 혹은 예방의학 전공의간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 지원해야한다. 전국에 배치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학회차원에서 수용하여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예방의학의 조력자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관리부분의 역학조사관이 사례가 될 수 있다.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학회나 수련기관에서 보건소나 일선행정조직에 조직인사관리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전공의들이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자체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고 일선 보건소도 변화의 도전에 응전하여 혁신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경영마인드, 무한 경쟁이란 말처럼 외부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소극적으로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전체 흐름을 감지하고 선점하는 전략으로 나갈 때 끊임 없는 지역사회주민의 보건의료요구에 충족할 수 있다.

단순히 복지부나 도에서 기획된 사업을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시대는 지났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참여하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목표에 따르면 과정을 마친 사람은 개체 및 인구집단(지역사회 또는 특수사회-기능집단)의 질병예방과 보건관리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1) 예방의학의 병인론적 및 총괄적인 보건의료 기본지식 2) 보건의료사업의 관리능력(기획, 수행, 평가) 3) 보건의료 책임자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으로 되어 있다.

임상예방의학이 최근 대두되고 있어 예방의학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수련을 통해 갖추어야할 지식과 능력은 이미 위에서처럼 제시되어 있고 이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전공의만의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먼저 경험한 선배와 학회차원에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변화에 대응할 때 예방의학전문의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대의(大醫)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유승흠. 예방의학전공의 수련과정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예방의학회지 1989;22(4):423-453
2. 안윤옥. 예방의학전공의 수련교육방향. 예방의학회지 1994; 27(4):659-664
3.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료의 새 희망을 위하여. 2000:549-618
4. 대한예방의학회 홈페이지 글모음
5. 박재용. 보건행정학 강의록